

# 三陰三陽의 運氣學的 解釋特性 考察\*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金度勳<sup>1</sup> \*\*

## 三陰三陽의 運氣學的 解釋特性

金度勳<sup>1</sup> \*\*

<sup>1</sup>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阴阳作为古代东洋哲学的主要概念，是所有东洋学思想的基础。以太虚到太极，从太极到阴阳，从阴阳到四象分化的二分法体系为基础，阴阳的概念在医学方面也形成了最大的理论背景。

虽然三阴三阳是阴阳的概念在医学理论范畴的延伸，它和阴阳的概念是有差别的。这是因为三阴三阳是立足于古代医学体系，是为了阐释医学体系而引入的概念。换句话说，三阴三阳是为了阐释人体的形成、构成以及变化的原理，通过“本-中-末”和“始-中-終”以及“開闔樞”的概念来解释人体而创造的创造性用语。

三陰三陽的概念是对阴阳的概念的扩大，但是和阴阳的概念范畴有差别。用运气学解释时三阴三阳的特性如下。

三阴三阳是为了解释人体的发生和构成及变化的原理，运用本-中-末和始-中-終，以及開闔樞的概念的创造性的用语。另一方面，作为三阴三阳的天文学的背景的宇宙观是宣夜说，存在于天体中的所有的事物都受大气的制约。

三陰三陽按照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的顺序，其分类是按照阴阳之气的多少来观察事物的。三阴三阳是观察气的量的状态和时间变化度，显现时空合一的高层次的概念。在这里所说的时间性的变化是指具有生命的有机体的变化。

三阴三阳在运气七篇以外的篇章中部分适用，应用于經脈的命名、脈象的形態、外感熱病的体系、傷寒病的分类形式等，在运气学中包括标本中的概念，设定为六气的标气，和十二地支结合形成完整的形态。

包含标本中的三阴三阳的特征阐明了属阴的行质和无形的气的变化。三阴三阳是在定性的基础上定量的把握事物，結合時-空，綜合臟腑經絡，形質的概念和气化的概念而形成的概念。

三阴三阳的变化，最初开始活动的出发点和最后完成形质结果的状态是重要的阶段，使这两阶段独立，成为和太少阴阳相区分的厥阴和阳明的阶段。

**关键词：**三陰三陽，運氣，標本中氣，五運六氣，周易

\* 본 논문은 2009년 7월 18일 中國 長春에서 개최된 中國中醫藥學會 中醫運氣學 學術研討會(2009. 7. 18)에서 발표한 論文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도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chulian@kyungwon.ac.kr Tel : 031-750-5422  
접수일(2009년 10월 24일), 수정일(2009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 I. 序論

陰陽은 古代 東洋哲學의 주요개념으로 모든 東洋學의 思想的 基底를 이루고 있다. 太虛에서 太極으로, 太極에서 陰陽으로, 陰陽에서 四象으로 분화되는 二分法的 체계를 바탕으로, 陰陽의 개념은 醫學

에서도 가장 큰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三陰三陽의 개념은 醫學의 이론 범주로 陰陽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지만 陰陽의 개념범주와는 차별이 있다. 그것은 三陰三陽이 고대 醫學의 체계에서 자리잡고, 醫學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三陰三陽이라는 개념을 통해 人體의 發生과 구성, 그리고 變化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며, 本-中-末과 始-中-終 및 開闔樞의 개념을 통해 人體를 설명하려고 한 창조적 용어였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의 개념과 醫學에서 解釋상 特徵과 運氣學에서의 解釋特性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한다.

## II. 本論

### 1. 三陰三陽의 개념발생

馬王堆 3號 漢墓에서 출토된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속에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 등으로 명명된 經脈이, 고대 醫學典籍에서 가장 먼저 三陰三陽의 명칭이 등장한 것이다<sup>1)</sup>. 陽을 분화하여 三陽, 陰을 분화하여 三陰으로 한 것은 『素問陰陽離合論』에 등장한다. “今三陰三陽不應陰陽, 其故何也”,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陰之前, 名曰廣明. 厥陰之表, 名曰少陽”<sup>2)</sup>. 이는 經脈을 解剖發生학적 개념으로 기술한 내용이며, 『素問天元紀大論』에서 “願聞其與三陰三陽之候, 奈何合之. 鬼臾區曰: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sup>3)</sup>라 하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帝曰: 善. 願聞陰陽之三也何謂. 岐伯曰: 氣有多少異用也.”라 하여 三陰三陽을 氣의 편차에 따른 구분으로 제시하였다.

### 2. 三陰三陽의 유래

- 1) 李磊. 三陰三陽學說文化哲學探源.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7(2). p. 75.
- 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51, 52.
- 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75.

三陰三陽에 대한 의미는 韓醫學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그 분류의 영역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4)</sup>. 그런데, 廖育郡<sup>5)</sup>은 原始的 三陰三陽說을 『周易說卦』의 三男三女說<sup>6)</sup>에 그 근원을 부여하였다.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周易』의 卦象에서 三陰三陽의 의미를 少-壯-老의 이론으로 살펴본 것도 있다. 즉 坤은 老陰으로 아래에서 一陽이 發生한 것이 少陽이며(震卦), 二陽이 생긴 것이 壯陽이며(兌卦), 三陽이 생긴 것이 乾卦로 老陽으로 보는 것이다. 老陽은 陰을 낳아서 乾卦 아래 一陰이 發生하면 少陰이며(巽卦), 二陰이 發生하면 壯陰이며(艮卦), 三陰이 發生하면 다시 老陰으로 坤卦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地天泰괘의 六爻는 아래에서 위까지 太陽, 陽明, 少陽, 厥陰, 少陰, 太陰 을 차례로 대표하는 것이다<sup>7)</sup>.

이상에 의하면 『周易』에서 먼저 三陰三陽의 개념이 탄생하고 나중에 다시 醫學이론에 吸收된 것이다. 이처럼 乾坤에서 六子를 낳아서 八卦가 형성되었다는 해설을 제외하고는 三陰三陽의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三陰三陽의 표현은 醫學에 주로 운용된 陰陽學說의 표현형식이다.

#### 1) 三의 文化哲學的 意味

『老子·四十二章』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고 하여 太極에서 陰陽, 陰陽에서 三才의 發生을 氣化過程에 따라 제시하였다.

고대철학에서는 숫자에 따라 사상의 범주와 의미를 부여하여 적용시켜 왔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三

- 4) 李瑞. 黃帝內經三陰三陽範疇的硏究. 北京中醫藥大學 學位論文. 2005. pp. 62-63.
- 5) 廖育郡, 傅芳, 鄭金生 著.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一中社. 2004. pp. 113-115.
- 6)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震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巽一索而得女, 故謂之長女, 坎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周易 說卦傳.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555.)
- 7) 喻嘉興. 三陰三陽淺論. 湖南中醫學院學報. 1995. 15(1). pp. 7-8.

에 한정해서 文化, 哲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化的 함의로 天地人 三才思想의 발로로 볼 수 있고, 둘째, 三은 奇數로 陽性的 수인데 길하고 祥瑞롭다는 뜻이 있으며, 셋째, 몇 개, 여러 번, 再三의 의미가 있고, 넷째, 溫全, 完備, 終極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미의 特徵이 있으며, 사물의 전개과정의 삼단계를 표시하는데 始作, 發展, 終局 등이다.(開始-發展-結局)<sup>8)</sup>.

이상을 종합하면 三은 有限의 終局이며 無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有限과 無限의 임계점이 되는 것이며, 量的인 변화가 질적인 變化로 傳變되는 要點이 되며, 事物化生의 관건이 된다.

## 2) 天文學的 背景

占星術과 歷算은 고대인들이 자연을 살피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醫學 분야에서 天地人 三才思想과 결부되어 天文을 관찰하고 地理를 살피는 수단이 되었다. 天文과 地理의 상호 관찰 하에서 五運六氣學說을 통해 땅의 五行과 하늘의 六氣와의 상호 작용을 추산하고 보편적 기운의 法則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天地人 三才 사상하에서 사람은 運氣를 포함한 모든 사물에 대해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sup>9)</sup>.

陰陽은 太陽의 소재에 따른 向背에 따라 太陽을 향한 부분이 陽, 등진 부분이 陰으로 추상화되는데, 陰陽의 量化과정에 따라 『周易』의 사상구조에 따라 사계절을 배속하기도 한다<sup>10)</sup>. 그리고, 陰陽의 量化과정에 따른 계통으로 三陰三陽 이론을 통해 더욱 완전히 陰陽을 量化해 내는데 성공한다.

醫學에 주로 적용된 三陰三陽이론의 배경이 되는 우주관은 宣夜說에 해당한다. 이는 하늘이 하나의

계란 껍질과 같은 것(渾天說)도 아니면서, 원개형 구조(蓋天說)도 아닌 것으로, 이는 질적인 때가 없는 허공 속에서 氣에 따라 運行되는 것이다. 즉 이는 천체 속의 모든 것이(존재하는 것이나 運動 모두) 大氣에 제약된다는 것이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帝曰：地之爲下否乎。岐伯曰：地爲人之下，太虛之中者也。帝曰：馮乎。岐伯曰：大氣舉之也。”<sup>11)</sup>라고 한 부분은 바로 宣夜說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의 運行인 六步를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內經』은 바로 이런 기초에서 六氣를 추산하여 五運六氣학설을 낳은 것이다.<sup>12)</sup> 즉, 일년의 變化를 六步로 나누고 이의 추산과정에서 대기의 陰陽과 五行特性에 대해 독특한 처리를 한 것이다<sup>13)</sup>.

## 3) 三陰三陽의 등장

三과 陰陽의 結合은 早-中-晚, 本-中-末, 始-中-終, 少-中-多 등의 人體 生理, 病理的 變化현상을 설명하려는 醫學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黃帝內經』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天文地理, 時間曆法 등과 經脈의 命名, 脈象의 形態, 『素問熱論』에서 外感熱病의 체계, 『傷寒雜病論』의 外感熱病의 형식 등과 함께 運氣學에서 六氣의 標氣로 기술되고 있다.

## 3. 三陰三陽 의미

三陰三陽은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으로 그 분류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의한 표준에 의해 사물을 관찰하여 象徵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이 三陰三陽은 단순히 量的인 편차만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다. 氣의 상태와 함께 시간적인 變化도 살펴서, 時空合一의 개념을 나타내는 고차원적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적 變化란 우주

8) 李磊. 三陰三陽學說文化哲學探源.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7(2). pp. 74-77.

9) 曲黎敏. 試論三陰三陽. 中國醫藥學報. 2002. 17(1). p. 20.

10) 繫辭에서 日月의 의미로 陰陽을 해석한 것은 “一陰一陽謂之道”인데 이것은 첫째, 太陽의 周日運動, 둘째 太陽의 周年運動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周易의 우주에 대한 개념은 蓋天說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즉, 하늘은 둥글고 지붕이 펼쳐진 것 같으며, 땅은 모져서 바둑판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1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 384.

12) 曲黎敏. 試論三陰三陽. 中國醫藥學報. 2002. 17(1). pp. 19-21.

13) 曲黎敏. 試論三陰三陽. 中國醫藥學報. 2002. 17(1). p. 20.

자연의 일반적인 變化와는 다른 개념으로 生命을 지닌 유기체의 變化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生長收藏의 變化를 하는 독립된 생명체의 變化를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 자연의 變化라 하더라도, 봄에 싹이 터서 겨울에 말라죽을 때까지 生長收藏의 變化를 의미 한다면 그것도 三陰三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陰陽은 본래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다. 즉 상대적인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나타내며 사물의 속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三”은 수량이나 量的 變化의 개념으로 다양한 내재적 의미를 띤다. 이 둘의 結合은 量的이면서 질적인 상태를 나타내어 고대인들의 지혜를 반영해준다. 이런 結合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인들의 생활 영역의 부단한 확대, 생활내용의 부단한 增加, 사물인식의 부단한 增加에 따라, 선인들이 복잡다단한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의 상대성과 다양성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사물에 대해 귀납적 분류와 비교를 통해 사물 사이의 관계를 “事實上的 關係”, “偶然的 關係”에서 “必然的 關係”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sup>14)</sup>.

陰陽의 二分法은 너무 간단하여 사물의 속성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지만, 실제 현상과 사물의 시간적, 공간적 측면을 함께 확대하여 歸類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반해 三陰三陽의 歸類法은 사물의 속성을 陰陽의 속성에 기본을 두고 파악할 수 있는 한편, 定性적 기초에서 定量적으로 사물을 파악하여, 사물의 整體적인 상태를 관찰한다. 나아가, 時-空이 결합되고, 臟腑經絡, 形質의 개념과 氣化의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다.<sup>15)</sup>

### 1) 醫學의 三陰三陽

醫學 영역의 三陰三陽은, 사물의 互根互用의 特徵과 함께 陰陽 쌍방의 대립투쟁이 量的인 變化를

發生시키고, 이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쌍방의 和諧 상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曲黎敏은 三陰三陽이 중국철학의 범주에 대해 질적 개변을 가져와서 定位, 定量, 定性, 定向 네 가지의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sup>16)</sup>.

『老子·四十二章』 “道生一, 一生二,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의 內容과, 『內經』의 “陰平陽秘”, 天人合一 등은 모두 그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 2) 運氣篇의 三陰三陽의 특성

生命體는 形體와 氣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를 표현하고 드러낸다. 이것이 標本中氣로 표현되는 양식이다. 三陰三陽이란 標本中의 개념을 포괄하여 運氣七篇 이외의 편에서는 그 개념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經脈의 命名, 脈象의 形態, 外感熱病의 체계, 傷寒雜病論의 外感熱病의 형식 등에 쓰였는데, 運氣學에서 六氣의 標氣로 설정되어 완성되었다.

標本中을 포함한 三陰三陽의 특징은 陰에 속하는 形質과 無形의 氣의 變化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의 季節變化는 形體가 없어서 標本中을 살필 필요 없이 陰陽의 편차만 보면 된다. 그러나, 유기적 生命體가 나타내는 整體性은 편차만이 아니라 形과 氣의 동시적 變化를 수반하는 것이다.

자연계의 변화에서도 봄철에 단순히 기온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자라고 만물이 자식을 낳는 것 등 생명체적 變化를 하게 된다. 이 때 厥陰風木의 기온이 작용한다면, 厥陰은 처음 陰이 자라는 형국을 말하는 동시에 그 속에는 반드시 風木의 기온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標本中氣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厥陰은 오직 風木의 기온과 結合하는 것이다.

### 3) 三陰三陽과 六氣, 十二支의 결합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帝曰: 其於三陰三陽, 合之奈何. 鬼臾區曰: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14) 李磊. 三陰三陽學說文化哲學探源.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7(2). pp. 74-77.

15) 馬曉梅, 穆齊金. 三陰三陽源流論. 中國實用醫藥. 2008. 3(12). p.96.

16) 曲黎敏. 試論三陰三陽. 中國醫藥學報. 2002. 17(1). p. 19.

辰戌之歲，上見太陽。巳亥之歲，上見厥陰。少陰所謂標也，厥陰所謂終也。厥陰之上，風氣主之。少陰之上，熱氣主之。太陰之上，濕氣主之。少陽之上，相火主之。陽明之上，燥氣主之。太陽之上，寒氣主之。所謂本也，是謂六元。”<sup>17)</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三陰三陽은 해당하는 시간의 氣象을 말하는 것이다. 즉 三陰三陽의 六氣를 十二地支에 배속하여 地道의 對化적 變化<sup>18)</sup>를 나타낸다.<sup>19)</sup> 이는 五運에서 甲巳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 등의 天干配屬을 통해 사물의 기를 표시하고 地支를 통해 사물의 化生을 나타낸 것이다.

#### 4) 六氣의 標氣로서의 三陰三陽

六氣는 風寒暑濕燥火의 기운으로 이 기운은 『素問五運行大論』에서 “燥以乾之，暑以蒸之，風以動之，濕以潤之，寒以堅之，火以溫之.”<sup>20)</sup>로 作用한다고 밝혀 六氣가 本氣가 되고, 이 기운이 땅에 作用하여 지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標氣, 즉 三陰三陽으로 파악될 수 있다.

主氣를 五行의 순서로 설명하는 것은 主氣가 形에 밀착된 氣이기 때문에 形의 설명방법인 五行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sup>21)</sup> 이에 따라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の 순서로 주기가 땅에 밀착하여 運行되어 일 년의 氣候變化가 五行의 순서에 따라 運行되도록 한다.

客氣는 해당 年度의 간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年支가 세 번째 기인 司天之氣가 되며, 이는 天氣로서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의 차례대로 司天之氣에 따라 運行한다.

여기서 司天之氣를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등 地支의 陰陽消長 관계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陽殺陰藏”이라고 제시한 기준에 따라 寅月을 기준으로 넷으로 나누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기 生長殺藏에 배속하고, 이를 각각 三陰三陽 陰陽의 편차에 따라 다시 배속하여<sup>22)</sup>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의 배속관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물과 人體의 드러나는 현상을 運氣에 따라 추산하여, 形을 지닌 사물이 氣를 통해 표출되는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5) 標本中氣

『素問六微旨大論』에 “帝曰：願聞天道六六之節，盛衰何也。岐伯曰：上下有位，左右有紀。故少陽之右，陽明治之；陽明之右，太陽治之；太陽之右，厥陰治之；厥陰之右，少陰治之；少陰之右，太陰治之；太陰之右，少陽治之。此所謂氣之標，蓋南面而待之也。”<sup>23)</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六氣의 表가 三陰三陽이 됨을 서술하는 것이며, 이어서 “少陽之上，火氣治之，中見厥陰；陽明之上，燥氣治之，中見太陰；太陽之上，寒氣治之，中見少陰；厥陰之上，風氣治之，中見少陽；少陰之上，熱氣治之，中見太陽；太陰之上，濕氣治之，中見陽明，所謂本也。本之下，中之見也。見之下，氣之標也，本標不同，氣應異象.”<sup>24)</sup> 라고 하여 標本中の 개념을 밝혔다. 이를 통해 六氣의 성질이 相反된 것을 表裏로 엮어 中氣의 개념을 표시한다<sup>25)</sup>.

1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78.

18) 對化적 變化란 마주하고 있는 상대의 기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 반응이며, 이의 상대가 되는 自化는 對化적 變化에 의한 자신의 變化를 의미한다.(김구연. 동양학아카데미1. 서울. 창진. 2007. p. 248.)

19) 尹暢烈. 三陰三陽에 관한 硏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6. 4(2). p. 338, 340.

2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84.

21) 李容範.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p. 47-48.(關於三陰三陽時間配屬硏究)

22) 寅卯辰은 陽生, 巳午未는 陰長, 辛酉戌은 陽殺, 亥子丑은 陰藏에 해당하며, 氣의 순서로 三陰三陽으로 배속할 때, 陽生에서 寅은 一陽인 少陽, 卯는 二陽인 陽明, 辰은 三陽인 太陽이 되고, 陰藏에서 巳는 一陰인 厥陰, 午는 二陰인 少陰, 未는 三陰인 太陰이 되며, 陽殺에서는 申은 一陽인 少陽, 酉는 二陽인 陽明, 戌은 三陽인 太陽이 되고, 陰藏에서 亥는 一陰인 厥陰, 子는 二陰인 少陰, 丑은 三陰인 太陰이 되는 것이다. (李容範.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 48.)

2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90.

2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90.

三陰三陽의 배속에 따라 陰陽과 形, 氣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標本中の 관계가 이를 보완하여 陰陽이 함께 作用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 6) 太少陰陽과 厥陰, 陽明

太陰, 少陰, 太陽, 少陽 의 四象구조는 二分法的 陰陽에 귀결된다. 그런데 三陰三陽에서 厥陰과 陽明을 시간적 始-中-末의 단계에서 따로 설정한 원리를 살펴보자.

陰으로 대표되는 形과 陽의 상태를 나타내는 氣로 구성된 形질의 변화는, 처음 活動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마지막으로 形질이 완성되어 結실을 맺은 상태가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를 독립시켜서 太少陰陽과는 구별되는 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內的으로 厥陰에서부터 風木의 기운으로 形質을 太陰까지 키워야, 外部에서 氣를 받아들여 이를 혼합하고 소화하여 실질적인 자신의 氣를 형성하고, 최종적인 太陽의 단계에서 寒水 속에 精으로 간직될 수 있다. 그러므로 厥陰을 三陰三陽운동의 첫머리로 보는 것이다.

陽明은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陽氣 세력 자체의 強弱多少가 중요한 것이므로 陽氣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陽明을 少陽, 太陽과 구별한 것이다.

## III. 結論

三陰三陽의 개념은 陰陽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지만 陰陽의 개념범주와는 차별이 있다. 이를 運氣學적으로 解釋할 때의 特性을 고찰해 본다.

三陰三陽은 人體의 發生과 構成, 그리고 變化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本-中-末과 始-中-終 및 開闔樞의 개념을 적용한 창조적 용어였다. 한편, 三陰三陽의 天文學의 背景이 되는 우주관은 宣夜說이며, 천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大氣에 제약된다는 것이다.

三陰三陽은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순서로, 그 분류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의한 표준에 의해 사물을 관찰한 것이다. 이 三陰三陽은 氣의 量的 상태와 함께 시간적인 變化도 살펴서, 時空合一의 개념을 나타내는 고차원적 개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적 變化란 生命을 지닌 유기체의 變化를 말한다.

三陰三陽은 運氣七篇 이외의 편에서는 그 개념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經脈의 命名, 脈象의 形態, 外感熱病의 체계, 傷寒病의 分類型式 등에 쓰였는데, 運氣學에서는 標本中の 개념을 포괄하여 六氣의 標氣로 설정되어 地支와의 결합을 형성하여 完整한 양식이 되었다.

標本中을 포함한 三陰三陽의 특징은 陰에 속하는 形質과 無形의 氣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三陰三陽은 定性적 기초에서 定量적으로 사물을 파악하여, 時-空이 결합되고, 臟腑經絡, 形質의 개념과 氣化의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다.

三陰三陽의 변화는 처음 活動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形질이 완성되어 結실을 맺은 상태가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를 독립시켜서 厥陰, 陽明의 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9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參考文獻

<論文>

1. 尹暢烈.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6. 4(2). p. 338, 340, 348.
2. 李容範.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연구(關於三陰三陽時間配屬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p. 47-48.
3. 曲黎敏. 試論三陰三陽. 中國醫藥學報. 2002. 17(1). pp. 19-21.
4. 李瑞. 黃帝內經三陰三陽範疇的研究. 北京中醫藥大學 學位論文. 2005. pp. 62-63.

25) 尹暢烈.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6. 4(2). pp. 348-350.

5. 李磊. 三陰三陽學說文化哲學探源.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7(2). pp. 74-77.

6. 喻嘉興. 三陰三陽淺論. 湖南中醫學院學報. 1995. 15(1). pp. 7-8.

<單行本>

1. 廖育郡, 傅芳, 鄭金生 著.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一中社. 2004. pp. 113-115.

2.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375, 376. pp. 301-309, 321-322.

3.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 51, 52, 375, 378, 384, 390.

4. 周易 說卦傳.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555.

5. 김구연. 동양학아카데미1. 서울. 창진. 2007. p. 248.